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권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54호
서기 2002년 1월 30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萬佛이 일불이고 一佛이 곧 만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집안식과 중공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공덕이 되는지,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알고, 부처님법의 활용을 우리 활용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식을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절에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항상 예불을 모시는 것은 사물이 되지 않습니다.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놨다 하더라도 집안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의 부처님이 만법을 상응하시면서 만 분이라도 응신이 돼서 응해 주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바깥으로 끄달리던 여러분도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끄달리던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내 한 몸 가운데 생명체들이 세포 하나 하나에도 꼭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집과 같은 거죠. 그 많은 마음들, 의식들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작게 따진다면 여러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벌거나 이룬다면, 자식 대대로 유전성으로서 그것이 확대가 돼서 차례차례 나오게 돼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갖다놓고 정성스럽게 하면 좋게 되는 줄 알고 온통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이 물러갈 때 문에 자기도 사불이요, 그 또한 사불이요, 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사불이 되는 것이니 거기에서 머리가 방방 돌아오고, 판단이 흐려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거나 형상을 보고도 그렇게 돼있고, 형상을 믿지 말라니까 부처님 믿으러 갈 게 없다고 하겠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들의 몸도 형상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틀이 아니요, 한 생각을 돌려서 잘 믿는데 따라서입니다. 법당에 만 불이 모셔져 있더라도 만 불도 일 불이요, 일 불도 만 불입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침성이나 관세음이나 지장이나 약사나 아록

간 하나 한 분입니다. 하나로 부르는 한 이름입니다.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지만 한 분입니다. 한 몸, 한 분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몸도, 그래서 한 분, 한 마음, 한 생명,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했다고 하였고, 부처님의 몸은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약사 따로 미륵 따로, 아록 따로 관세음 따로, 지장 따로 부른다면,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면, 생활을 할 때에 잘나잘나 앞에 딱치고 잘나잘나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대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빌어야 하고, 여기다가 빌어야 하고, 저기 빌어야 하고 정신이 없죠. 딱치는 대로.

한 분의 이름만 불러서, 만약에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틀이 아니게끔 한다면, 거기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면은 사대로 통신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알고 한마음으로 따라줘요. 이것은 심성 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정신계를 무시하면은 육신이 뭐가 됩니까? 물질적인 육신이, 그러니 쓰러진다 하더라도 대치를 할 수가 없죠. 내 한 생각에 통신이 되면은 사대로 통신이 돼서 안에서 다 알고 작용을 해줄텐데, 통신이 안되니까 바깥으로만, 안에 자기는 속 빼놓고 바깥으로 부처님이 높이 앉아 계신 줄 알고, "부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삼재가 없게 해주세요, 번뇌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별 타령이 다 많지만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여러분 대신 품 뉴줄 수도 없을 것이고, 밥 먹여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잠 자줄 수도 없을 것이고, 아파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죽여 줄 수도 없을

그걸 봤습니까?
한 가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우연히 만난 인연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병풍 둘러친 것처럼 둘러싸여서 모두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대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해도 기사분들은 기사분대로 모이고, 기술 계통은 기술 계통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물건도 천차만별의 물건들이 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서 인연이 돼서 멀리 살아도 같이 만나게 돼서 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강뚝 끼리 한 가정이 됐는데, 아니 같이 부딪혔는데 말입니다. 소리가 난다고 "너 때문에 소리가 났다." 이라고 남을 탓할 것입니까? 남의 탓을 하느냐 할 게 없어요.

가정에서 자손들이 잘못되는 일도 자손들을 탓할 게 없고, 부부기간도 서로 탓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몸으로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잘못됐으면 몸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대치를 해야만 이

이름 찾고 저 이름 찾고, 이 모습 찾고 저 모습 찾으니깐 그냥 산란한 거죠. 말도 할 수 없지요. 삼재가 들었다 이러면 벌써 가슴이 떨려 내려앉는 겁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두려워해서야 어떻게 고등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는 관습에 의해서 여러분 머리에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쓰고 나와서 집을 지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집도 지어 가지고 좀 몇 해 살다가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 헐어버리는 겁니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모습 이 자체가, 이 모습은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데, 마음 도리는 참 자기가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게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발전이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물리가 터져야 되고 전체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겠지요.

세상에 우리가 잘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을, 그리고 고정된 게 없는 마음에 어느 누가 불을 지르기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어느 거 하나 불을 지르기가 없는 자체가 시공을 초월했고, 고정됨이 없고 실사 없이 돌아가는 자체입니다. 금방 아버지가 됐다 금방 또 남편이 되듯이 그렇게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요. 한 바다에 물이 지구를 끼고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꿈을 잘못 꾸어도 '아이고 이거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길까,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남자들이 꿈을 잘못 꾸었으면 '이거 또 무슨 내가 다니는 데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한 생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벌어서 먹고살라, 다스리라, 기르라, 온통 야단법석인데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평화스럽게 못하고 어떻게 사람 산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여래의 집

여러분이 중공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느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몸 속에서 이 몸을 집 삼아 살고, 개개인의 집이 아니라 한마음의 집으로서 같이 들고나면서, 더불어 한마음 집이고 천차만별의 집인 까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공식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이 집을 지어놓았는데 어느 개개인의 집이 아니라 어떤 분 이래도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이라는 집도 부처가 되면은 벗어 던지게 되는 거고, 변하게 되는 거고, 헐어지게 되고,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집을 지어놓고 못 중생들이, 못 생명들이 들고나고 하다 보면은 이 집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반면에 들고나는 사람들이 집을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칩니까? 그렇죠? 판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들의 집은 우리들이 고쳐야 하죠?

그런 거와 같이 마음 속의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 나가는 바로 주인공의 뿌리가 일체를 관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집에다가 모셔놓거나, 어디서 사왔다고 해서 갖다놓고 아침, 저녁 엄불하거나,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잘되게 해달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다면, 사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즉 말하자면 견성, 성불, 구경경지, 열반 경지에 이르기까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견성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물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은 중생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못 중생들의 사물이 되고 말죠. 그러니 오히려 안 모신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산에다 몰려놓고 빌거나 집에다가 아무렇게나 부처님을 모셔놓고

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깨끗한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또는 못났든 잘났든 바로 너에게 네 뿌리가 있느니라. 바로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되니, 네 뿌리를 믿지 않고 타의의 형상을 믿거나 허공에 이름을 믿거나 그런다면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나를 이끌어 가는 정신계의 영원한 자기를 모르고, 나부터 알아야 할 텐데도 모르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법당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바로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모두 기복 아닌 게 없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놓고! 이러니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이니 아마타니 미륵이니 하는데, 여러분이 각자 얼마나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머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며느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할머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아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은 남편이 되는데, 남편 따로 아버지 따로 이름을 각각 표리표 불여놓듯 하구먼 각자 믿어와 되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만 명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한 부처님이지 만 명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들어 있어도 한 분이지, 만 분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그래서 병원을 막론해 놓고! 이러니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자기부터 마음세계를 알아야 죽은 세상 산 세상이 하나

그건 해결이 납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마음이 잘못된 건 마음으로 고쳐야지, 이론으로 고치고 말로 육을 하고 때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여러 학생들이 떼로 오더라고요. 애는 절에 가끔 나오지마는 상당히 주력을 하고 다니는 애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여드는 순간 '주인공, 네가 있으면 해결해! 나는 너의 시자일 뿐이야!' 그러곤 딱 말긴 겁니다. 믿는 사람은 걱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나 못 믿는 사람은 말겨놓고도 온통 산란해서 발발발발 뛰지만 진짜로 믿는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 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물러오더니 똑똑 차면서 "돈 없니?" 하길래 "아무것도 없고 돈 이천 원인가 삼천 원밖에는 없어요" 하니까 "에이 그까짓 거 뭐 한데 쳐 봤자야 그렇고 그냥 가자"고 하면서 돈 삼천 원 받아 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 아나게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가 자릅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컵이 컵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가 다른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느냐구요, 그건 못합니다. 돌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실감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삼재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팔자운명이니 이런 소리 하나 안해도 됩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이

한분, 한마음, 한생명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이 닥쳐도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가서 공부를 안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쳐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없는 일을 왜 해니까? 그렇다만 욕심이라고 하겠소? 그러니까 몽땅 다 집어먹을 욕심을 부리라 이거예요. 몽땅 놔 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몽땅 버리지 않는다면 몽땅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까짓 거 조금만 그런 거를 놓지 못해 가지고서는 큰 걸 잃어버리는 삶을 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애당초에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자신부터 먼저 알아. 내 모습을 보고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깨달아 안다면 바로 네 마음이 내 마음임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너한테 줄 수도 있고 네 마음을 나한테 줄 수도 있느니라." 그걸 '주장자'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러고,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나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길잡이로서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밖에는 안된다. 길을 인도해 준다 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을 똑똑히 봐라. '말! 행! 뜻!' 이것을 똑똑히 보고 따르라 이거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해야 2세대들이 그대로 본받게 돼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을 같이 더불어 만나고 하는데, 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뭘 줄 아십니까? 더하고 덜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을

빈 손이 되고 빈 발이 되어야

것이고, 깨우쳐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밝게 마음을 발전해서 위로는 조상들과, 아래로는 내 몸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도 더불어 같이 빈손이 되고 빈발이 돼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아래로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놓아 놓은 자손들도 세세 생생에 멋진 사람으로서 빛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학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진실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편면 여러분 자신 혼자만이 아프지 누가 대신 아파 주는

빈 손이 되고 빈 발이 되어야

18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어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문